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코스피 5137.89 (+70.45)
코스닥 684.81 (+22.00)
금리(국고채 3년) 3.720 (-0.016)
환율(원·달러) 1330.0 (-3.0) 〈19일〉

metroseoul.co.kr
metro®
Economy

제6039호 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하나금융그룹

"AI 도입시 속도 보다 '방향' 중요 업무구조, AI 중심 재설계" 한 뜻

메트로경제, 뉴테크놀로지 포럼

AI 기술발전 기업 대응전략 논의
초기 지속적 프로세스 개선 강조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성과를 창출하려면 도입 속도보다 활용 전략과 조직 내 정착이 중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였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18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을 개최했다.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전환(AX)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기업의 AI 도입 과제를 짚고, 업종별 활용 전략과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기사 L7·L8〉

이날 행사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이우용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의 축사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가 AX 시대의 산업적 의미와 포럼 개최 취지를 담은 개회사로 행사의 방향을 제시했다.

기조강연은 이경전 경희대 교수 겸 한국AI서비스학회장이 맡아 AX 확산에 따른 산업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향을 짚으며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AI가 개인과 기업 모두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주제별 강연에는 김지섭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한영섭 LG유플러스 AI R&D랩장, 박기철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 현창호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 분야별 현황을 진단했다.

강사들은 AI 기술의 발전이 산업 현장에 가져온 변화와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특히 AI를 실제 사업과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조직적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네 연사의 강연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속도'보다 '방향'이었다. 연사들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 경제성과 업무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업무 구조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AI를 도입하거나 업무 시간을 줄이는 데 그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조직과 업무 방식도 함께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감수하며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자세가 강조됐다. 전문가들은 초기 성과에만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AI를 조직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이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주제로 18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렸다. 포럼은 산업별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AX 전략 방안을 공유했다. /최규춘 기자 ch9720@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부터)이 이날 오후 선전 치린산장에서 만나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중·러 첫 3자 정상회의 '핵무기 감축' 韓 영향 주목

美 트럼프, 선거 패배의 돌파구로
中 핵 군축협상, 이란 해법 찾는 듯
'우크라 침공' 고립 러, 국제 복귀

19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된 제33차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역사적인 첫 3자 정상회담을 갖고 주요 세계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최대 의제가 된 '핵무기 감축' 관련 논의도 이뤄져 향후 한반도 비핵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중국·러시아 국가 지도자의 사상 첫 '3국 정상회담'이 이날 오후 중국 선전에서 열렸다. 외신들은 핵무기 감축과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측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로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하자 중국을 핵 군축 협상에 끌어들이고 이란 문제에서도 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폭스뉴스에 "중·러를 동시에 만나는 것은 (미국에) 전략적 이점이 있다"며 "중·러 정상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나라가 과거 본래 적대적인 관계였다며 "협력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감축 논의를 두고 "전 세계 핵무기 비축량에서 러시아가 2위이고 중국이 3위다. 중국과 큰 격차가 있지만 핵 무기 개발에 열중하고 있어서 10년 만에 격차를 줄일 수도 있다"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양자회담에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을 보장하고 이란의 핵 무기 보유를 저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자 정상회담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으로부터 고립됐던 러시아의 성공적인 국제무대 복귀를 위한 판을 깔아주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외신들은 여전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공습하고 러시아가 조건 없는 휴전안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으로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이번 3자 회담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전후 세계질서를 논의한 얄타 회담에 빗대 '제2의 얄타회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에 "꼭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관측도 많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3개국 정상들과 정상회담, 회동, 대화를 나누며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중국 선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는 다뤄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 같이 보이지는 않고, 주요 이슈는 아무래도 핵 군축 문제라든가 이란, 우크라이나가 있을 수 있고, 지역 정세 중에서 다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韓 수출 1조달러 돌파… 獨·美·中 이어 세계 4번째

산업부, 8월 누적 수출 증가율 53%
빅테크 인공지능 투자확대가 견인

대한민국이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다.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처음 달성한 지 62년 만에 이뤄낸 대기록이자, 독일·미국·중국에 이은 세계 4번째 쾌거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19일 오후 2시 9분 38초 기준 연간 누계 수출액이 잠정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7093억 달러) 고지를 밟은 지 불과 1년 만에 앞자리를 바꿨다. 〈 관련기사 3면〉

특히 이번 기록은 2006~2007년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기존 3개국 이후 19년 만에 나온 성과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교역 둔화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올해 1~8월 기준 주요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52.9%)을 기록하며 저력을 입증했다.

수출 성장은 글로벌 빅테크의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견인했다. AI 데이터센터 수요 폭증으로 반도체(1~10월 3968억 달러)와 컴퓨터(451억 달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여기에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575억 달러) 선전과 K-뷰티(화장품 124억 달러)·K-푸드(농수산식품 108억 달러)·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의 약진이 더해지며 전체 수출의 20대 주력 품목 중 16개 품목이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 저변도 한층 넓어졌다. 미국(+77%), 중국(+88%), 아세안(+69%) 등 주력 시장은 물론 인도(+38%), 중남미(+10%) 등 신흥시장까지 9대 주요 지역 중 7곳에서 수출이 늘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1076억 달러)과 중견기업(1~3분기 1037억 달러) 모두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하며 수출 생태계의 허리를 탄탄히 받쳤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세계에서 단 4개국만이 달성한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며 "수출 1조 달러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수출 호조의 온기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 "특검, 추경호 항소포기해야…조작기소 특검법에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 동원"
▲무죄 추경호 대구시장 "24시간 시정과 시민 행복 위해 돌아갈 것" /사진 뉴시스

▲대법 전합, 김건희 '3대 의혹' 징역 4년 확정…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국힘 김장겸, '국가시험장 내 전파차단장치 사용' 전파법 개정안 발의

▲국토부, 전북 동부 산간권 제설대책 점검…"대응 빈틈없어야"
▲우체국 2000여 곳 한파쉼터로 개방…편의점·복지관도 활용